

# 文, 5·18 '민간인 사격' 특별조사 지시

### 공군 전투기 부대 광주 출격대기 명령·헬기 기총사격 2건 관련... JTBC 보도·'택시운전사' 배경 된 듯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뤄진 군 부대의 민간인 사격 등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당시 전일발당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 2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1일 방송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준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관련 보도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이 특별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조사 지시는 5·18 진상규명을 약속해 온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외신기자의 눈을 통해 5·18의 아픔을 보여준 영화 '택시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도 특별조사 지시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에 광주 전일발당을 방관한 적도 있고

그곳에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재차 약속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언론보도를 본 뒤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전투기 폭격 대기명령 등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스

##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지난 4일 경무관으로 명예퇴직한 김성중(55.사진) 전 익산경찰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서장은 "미래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익산을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지금보다는 좀 더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우리 고향 익산을 건설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익산출신으로 경찰대학을 2기로 졸업한 후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과장, 대구동부경찰서 과장, 인천강화경찰서장, 서울양천경찰서장 등 전국주요도시에서 행정경험을 쌓고 고향인 전북에서는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형사과장, 익산경찰서장을 역임했다.

행정발전유공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익산경찰서장 재직 중에는 다양한 지역 활동 유공으로 한센인총연합회 감사장, 원광대총장 공로패, 2017년 익산상공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익산학연연구소, 미래농업포럼 자문위원이며 '익산성장 THE FORUM'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與 정발위 구성... 공천률 안 다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내 내용을 일컫던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구성하며, 지방선거 공천 규정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지방선거 문제는 지방선거기획단(기획단)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친문 의원과 시도당 위원장의 요구를 일단 추미에 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추 대표와 박남춘·박범계 등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 활동한다. 기획단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준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로 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당(지역위원장이 공신인 지역위원회) 공천의 경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기획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감생활 마치고 돌아온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에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김춘진 "억울한 옥살이... 양심과 진실은 투옥 못해"

###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에 "정치 보복... 사법기관 무리한 기소 사과해야"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사진)은 23일 "73세 노령의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한 전 총리의 고통스러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

에 만지저탄의 심정이며 양심과 진실은 투옥하지 못한다"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자세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한 전 총리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척되고 1심 무죄 사건을 2심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은 정치 보복으로 불수밖에 없다"며, "어찌보면 사법적 참극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개인의 명예를 무너뜨린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우리 사법 현실

은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게 됐다"며 "현재 한 전 총리 구속을 주도했고 가장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할 장본인들은 지금 상당수가 검찰을 떠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했던 장본인 그리고 사법기관은 모두 사과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MB 때 인권위 사임 유남영 변호사

###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사위' 참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같은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경찰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이 이날 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한 달여 동안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인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인권침해사건 선정과 관련된 분류·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뉴스 취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민간 인권전문가들 중심으로 8명 정도로 구성된다. 발족식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미군동 경찰청에서 열린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 중에는 특히 법조계에서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유남영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를 맡는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인권 현안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2010년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조국 비상임위원(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용산참사 관련 백서 제작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을 볼 때 유 변호사는 경찰에 상당히 깔려온 '운동권 변호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명망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는 것이 객관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경찰 수뇌부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무게를 둔다.

첫번째로 다룰 인권침해 사건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용산 참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리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요 사건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진상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 진행방식 등은 진상조사위에 서 내부 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뉴스

#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 2017.9.22(금) ~ 9.2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미당

사과낚시체험

깃질놀이

동마도축 "함금반식골 찾아라!"

전국 한우 콘포노르기 대회

사과와의 물방

애들포차 체험

주 회 | 장 수 군    주 관 |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등